〈파운데이션〉과 〈아이 로봇〉의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 (1)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란 이름을 빼놓고 과학저술을 논하는 것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빼놓고 천문학을 논하는 것과 같다. 그는 확실히 과학저술 분야의 독보적인 존재이다. 방대하다, 엄청나다 등의 수식어를 붙이기가 때론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과학저술을 남겼다.

과학저술의 독보적 존재이자 로봇공학 3원칙 창시자

그가 쓴 책들의 제목만 소개해도 이 칼럼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정도라고 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지적 산물을 우리에게 남기고 떠났는가를 알 수 있다. 그가 남긴 책은 500권이 넘는다. 또한 듀이의 도서 십진분류법 체계의 모든 분류 항목 안에 포함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또 과학소설과 같은 픽션 부문뿐만 아니라 과학 에세이와 과학 해설과 같은 논픽션 부문에서도 뛰어난 존재감과 우월감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부분의 과학저술가들은 자신이 전공한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는 천문학,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 과학은 물론이고 역사, 지리, 신화, 종교, 심리학 등 여러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놀라운 재주를 지녔다. 또 그의 글에는 유머가 강물처럼 흐른다. 이 계절에 아시모프를 소개하는 것은 그의 작품들을 통해 장마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선물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해서다.

아시모프를 이야기하면서 로봇 이야기를 빠트릴 수 없다. 그는 로봇공학의 원칙 창시자이다. 그가 제시한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르면서 로봇공학을 공부했다거나 로봇 마니아라거나, 로봇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얼치기에 지나지 않는다. 로봇공학 3원칙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이를 소개하면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3원칙은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로봇 자신을 지켜야 한다.

글_안종주
과학칼럼니스트
jjahnpark@hanmail.net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신문 과학기자, 한겨레 보건복지전문기자를 지냈으며. 현재 〈프레시안〉에 '안종주의 건강사회'를 연재하고 있으며 〈내일신문〉에 '세상읽기'와 과학 · 환경 분야 서평을 정기적으로 쓰고 있다.

과학저술계의 독보적 존재, 엄청난 작품을 남긴 천재적 다작 작가, 로봇공학 3원칙의 창시자 등으로 그의 삶과 책의 얼개를 그렸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며 어떤 저술들을 남겼는지, 그 저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자.

글쓰기가 삶이요 생명 그 자체였던 초인적 저술가

아시모프는 유태인이다. 1920년 러시아에서 방앗간 집 아들로 태어났다. 3세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성장하였다. 1949년에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보스턴 대학에서 생화학과 교수가 되었다. 하지만 소설 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교수직을 그만두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혹 글쓰기에 전념하기 위해, 즉 전업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교수직을 내던지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명성을 얻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자연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현명했고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세상을 떠난 지 22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가 남긴 과학소설과 교양과학 책들은 살아 숨 쉬며 지구촌 사람들에게 때론 감동을 주고, 때론 상상력을 키워주며, 여기에 지식까지 덤으로 선물해주고 있다. 보스턴 대학은 나중에 그가 과학저술 분야에서 이룬 명성과 업적을 높이 평가해 종신교수로 임명했다.

아시모프는 과학소설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받는 작품들을 잇달아 발표했다. 아서 클라크, 로버트 하인라인과 함께 SF계 '3대 거장' 중 하나로 꼽힌다. 20세기 최고의 과학소설가이자 교양과학 저술가로 평가받는 아시모프의 영향력은 그 명성만큼이나 엄청나다. 그의 이름을 딴 소행성과 잡지도 있다. 뉴욕의 한 초등학교는 그의 이름을 따 학교명을 지었다. 과학소설 및 교양과학 분야에 각각 그의 이름이 붙은 상이 있다. 아시모프는 '글쓰기 기계' '미국의 보배'로까지 불렸다.

그가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남긴 비결은 다름 아닌 오로지 글쓰기만 한 것이다. 다른 취미나 잡기를 즐기지 않았다. 고소공포증이 있어 비행기도 타지 않았다. 그러니 멀리 여행하며 뺏기는 시간도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작 작가들이 몇몇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술자리에 어울린다거나 이곳저곳으로 여행을 자주 다닌다거나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사회와 담을 쌓고 지내는 외톨이형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는 숨을 쉬는 이유와 같은 이유로 글을 쓴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내가 글을 쓰지 않았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 적도 있다. 글쓰기는 그에게 삶이요 생명 그 자체였던 셈이다.

50년간 집필한 필생의 역작 '파운데이션'

아시모프는 미국인본주의자협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그리고 1965년 휴고상 특별상, 1973년 휴고상, 네뷸러상, 1992년 휴고상(중편부문) 등 수십 개의 저명상을 받은, 화려한 수상 경력을 지녔다. 대표작으로는 〈아이, 로봇〉, 〈미스터리 환상여행〉, 〈아시모프의 천문학〉, 〈로봇〉, 〈파운데이션〉, 〈아시모프의 과학소설 창작백과〉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의 작품을 일일이 소개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것은 오히려 그의 진가를 묻히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핵심 작품 몇몇을 소개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시모프를 이야기하려면 첫 손가락에 〈파운데이션〉을 꼽아야 한다. 〈파운데이션〉은 아시모프가 1942년부터 시작해 사망할 때까지인 1992년까지 50년간 집필한 필생의 역작으로 500년간 은하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룬 대하 연작소설이다. 국내에서는 출간되지 않았던 유작 〈파운데이션을 향하여〉를 포함해 모두 7권의 완전판이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도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각 에피소드마다 놀라운 반전과 시

선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스릴러의 재미가 있다. 그리고 추리적 요소가 가득하여 독자들이 책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파운데이션'을 설립하려는 주인공 해리 셀던의 계획부터 주변 강대국들의 알력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은하계의 강자로 성장하기까지, 그리고 셀던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배자 '뮬'의 등장과 셀던이 준비한 '제2파운데이션'의 활약,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2파운데이션과 파운데이션 간에 누가 은하 제국을 지배할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치밀한 두뇌 싸움 등 수백 년의 역사가 끊임없는 사건과 반전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운데이션에서 새로운 학문 개념 '심리역사학' 최초 선보여

아시모프는 우리에게 로봇공학 3원칙과 함께 〈파운데이션〉에 나오는 해리 셀던이란 인물을 통해 국가와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는 '심리 역사학'이란 새로운 학문의 개념을 선보였다. 그의 역사심리학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도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하나다. 그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예측하고 대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학문'인 '심리 역사학'을 전공하고 싶었으나 아직 현실에 없는 학문이라 가장 유사한 학문인 '경제학'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다. '심리 역사학'은 디지털 정보 시대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파운데이션〉에서 셀던은 정치 사회학, 수학적 확률론, 집단 심리학, 경제학 등을 결합하여 '심리 역사학'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0경, 즉 지금의 지구 인구 17만 배 가량에 해당하는 인간이 모여 있는 거대 은하 제국이 곧 붕괴되고, 인류 문명은 3만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암흑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셀던은 그 암흑기를 단 1천 년으로 줄이고 인류 문명을 보존하기 위해 변방의 행성에 '파운데이션'이라는 지식인 국가를 건설하고, 자신이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파운데이션을 성장시켜 인류 문명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할 제국의 주인으로 만들려 한다. 생산되는 자원 하나 없던 파운데이션은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으며 존폐의 위기를 겪지만, 그때마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들과 '심리 역사학'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고 은하계를 지배할 제국으로 성장한다.

이 소설은 영국이 낳은 세계적 역사가인 에드워드 기번(1737~94년)의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영감을 얻어 저술한 작품으로 알려졌다. 현실 정치와 국가의 흥망성쇠를 다룬 역사적 이야기들이 소설이 주는 재미와 함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로 전개되는 매우 독특한 SF소설이라는 평가가 잘 어울린다.(다음호에서 계속) ST